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0년 6월 Vol.195

특집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과 18주기 추모행사

정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역사 광주 민중항쟁 40주년과 평통사의 활동

현안 군산 미군기지 문제점





[특집_효순미선평화공원]

- 1 추모시_56번 지방도 + 송경동
- 2 자주평화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 + 유영재
- 5 효순미선 평화공원은 자주적인 한반도를 만들어갈 산 교육장 + 권정오
- 6 자주 평화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날 효순이와 미선이 + 변혜숙
- 8 완공된 평화공원에 와보니.. + 회원들
- 11 친애하는 한국 친구들에게 + 앤라이트

- 12 [정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 14 [역사] 평통사 청년 활동가로서 맞는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 이기훈, 김은주, 이우성

- 1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그리운 고 박종섭 대표님께 + 정동석

- 18 [미군기지] 군산미군기지 현황과 문제점 + 박운옥

- 22 [소식] 광주/나주/군산/목포/대구/보령/부천/부산/서울/순천/인천/논산계룡/
성남용인/대전충청

- 30 [회비와 후원금] 감사합니다.

- 32 [결산보고] 5월

56번 지방도

- 효순미선 평화공원 건립을 위하여

송경동

누구나 살아가며
잊지 못할 길이 있지요
56번 지방도가 그렇지요


2002년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
쉬던 날. 한국과 포르투갈이 월드컵 16강전을
앞두고 있었던 날. 휴전선 가까운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에 살던 열다섯 살 효순과 미선은
56번 지방도를 따라 들꽃처럼 환하게 걸어가고
있었지요. 언덕 너머 300m 미진이네집에서 친구
들과 모여 의정부로 놀러가 생일파티를 하기로 했
지요. 노래방에도 가서 종달새들처럼 놀 계획이었죠.

쭉 뻗은 언덕길 뒤에서는 전투훈련을 마친
주한 미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장갑차 부대가
법원리 쪽에서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교대하러 가는 M2/M3 브래들리
기갑 전투차량 다섯 대가 덕도리 쪽에서 언덕을
넘어 오고 있었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육중한 탱크 바퀴가 지나 간 도로 위에
두 소녀가 납작 쓰러져 있었죠
뼈도 없는 토마토 파편처럼 짓이겨져 있었죠
오, 필승 코리아!
월드컵 16강 진출의 환호소리에 묻혀
두 소녀의 비명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죠

오, 필승 코리아는 종전 체결권도
전시작전지휘권도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도 없었죠
그들은 그들에 의해 무죄로 풀려난 직후
급히 본국인 미국으로 보내졌죠

다행히 두 소녀가 흘린
땀건 피 속의 적혈구 하나하나가 살아나
그해 겨울 처음으로 이 땅에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눈감을 틔도 없었던 두 소녀의 영혼처럼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죠
평택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촛불
한미FTA반대 촛불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
용산철거민참사 책임자처벌 촛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촛불
민중총궐기 총파업 노동법개악저지 촛불
그 모든 촛불이 모여
박근혜퇴진 촛불로 거듭 타오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열네 살 두 소녀를 기억하는
영혼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죠

누구나 살아가며
잊지 못할 길이 있듯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길도 있죠
덕도리로 넘어가는 56번 지방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길이죠
오, 필승 코리아!
이 땅의 점령군과 휴전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전쟁과 무기와
군대와 살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길이죠 

자주평화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18년 전, 미군 궤도차량에 처참하게 희생된 효순미선 추모제가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사고현장에 세워진 효순미선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두 여중생의 죽음을 기억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식을 겸해 진행되었다. 행사는 사건 현장인 56번 지방도로에서 묵념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영정을 따라 효순미선 평화공원으로 이동했다. 제작된 지 8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시민추모비 ‘소녀의 꿈’이 두 소녀의 영정과 참가자들을 맞았다. 추모객들은 시민추모비 앞에 놓인 효순 미선 양 영정에 헌화했다. 박석분 평화공원 조성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평화공원 경과보고를 했다. “시민단체 159곳과 연인원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시민추모비 건립위원과 평화공원 조성위원으로 참여했고, 공원 조성 공사에도 100여 명이 넘는 조성위원들이 기술과 땀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며 “이 공원을 완공할 수 있었던 힘은 지난 18년 간 효순이 미선이를 잊지 않고 촛불을 지켜온 시민들”이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평화공원 조성에 힘쓴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민추모비를 제작한 김운성, 김서경 작가, 공원을 설계한 이윤하 건축가, 기반공사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맡은 김대송 익산 평통사 대표, 부산평통사 손기종 사무국장, 부천평통사 정용진 사무국장과 촛불벽화를 비롯하여 공원 벽을 꾸민 이구영, 김종도 작가, 태양광을 설치해 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규 이사장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오근갑 선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 8년간 효순미선을 돌보듯이 시민추모비를 지켜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과 이현준 원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평화공원에는 사고 당시 손을 잡고 걸어가던 두 여중생을 묘사한 실루엣 조형물을 공원 명칭 조형물과 함께 세웠다. 사건 현장에 놓여 있던 운동화를 모티브로 세워진 평화공원의 벽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파개정, 부시 사과의 촛불을 높이 들었던 모습을 묘사한 대형 촛불 벽화가 그려졌다. 사건 경과와 의미를 정리하여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했다.

이어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첫 순서로 유족을 대표하여 신효순 양의 아버님 신헌수 선생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아버님은 “공원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효순·미선의 발자국

경기도 양주시 광학면 56번 지방도로 옆에 새로 생긴 발자국 하나. 19년 만에 시민들 손으로 세운 '효순·미선 평화공원'이다.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던 2002년 8월, 한구 생활전선에 거리가 주원미군의 56번 지방도에 임시장한 14살 여중생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사고 현장엔 8월15일 공터에서 수습한 문화물을 본따 만들었다. 사고차량 운전병과 통신팀은 미군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5월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주원미군 범죄 재판권은 여전히 미군에 있고, 과도한 발파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커졌다. 어린 딸들과 사별한 발파비 집주인 이국아 활동한 한-미 관계를 위한 발자국이 뒤집힌다.

발파/정철규 선임기자 chong21@hani.co.kr



사고 현장에 남겨진 소녀들의 운동화 한쌍(왼쪽)은 이제 평등한 한미관계를 향한 하나의 발자국이 되었다.

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화공원 조성위원회를 대표하여 권정호 변호사는 “효순미선 평화공원은 미군에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민간의 힘으로 조성된 첫 공원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진 효순 미선의 넋이 영원히 안식하고 자주·평화·통일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오롯이 담았다”고 그 의미를 짚어 주었다.

이어 각계 추도사가 진행되었다. 전교조 권종오 위원장은 “이곳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 평화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양주시 조학수 부시장도 추도사를 통해 효순 미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자고 다짐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송경동 시인이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지은 <56번 지방도 -효순미선평화공원 건립을 위하여>라는 추모시를 낭송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을 전국민적 투쟁으로 일군 사람들을 소개했다. 평통사 고영대 대표는 여중생 범대위 결성과 투쟁을 주도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섰다. 또한 고영대 대표와 박기학 소장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워커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고 운전병과 통신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 사실을 밝혀냈다. 고영대 대표는 추모비 건립과 평화공원 최초 제안자이기도 하다.



김영자 선생(오른쪽)이 추모의 춤을 추며 효순양의 부친인 신현수 선생(왼쪽)을 위로하였다.


사건 직후 현장에 달려가 현장 사진과 증언 확보 등 초기대응에 나선 김종일 전 서울 평통사 대표와 고 김판태 군산 평통사 대표도 소개했다. 이 노력 덕분에 사건 진상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한반도 평화캠페인 책임자 앤 라이트 예비역 대령의 메시지가 소개되었다. 메시지에는 “미션 효순의 불의의 죽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여러분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신태훈과 심미선의 유족은 물론이고 지난 75년 동안 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많은 범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중생 투쟁을 이끌었던 홍근수 목사님의 뜻을 이어 효순미션 평화공원에 물심양면으로 크게 기여한 향린교회와 교인을 대표해서 김희현 목사가 대표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평통사 청년회원들이 ‘마른 잎 다시 살아나’와 ‘약속, 우리 촛불을 들자’라는 노래를 진심을 담아 불러 공감을 자아냈다. 해남 평통사 회원이자 춤꾼 김영자 선생이 효순 미선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춤을 추면서 신현수 선생의 손을 잡아주어 유족의 깊은 아픔을 위로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효순미션 평화공원의 상징 벽 제막에 나섰다. 천이 벗겨지자 “자주 평화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나라! 미션아 효순아!”라는 글과 함께 효순 미션이의 얼굴 그림이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는 효순 양 아버님 신현수 선생과 평화공원 조성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 평통사 문규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오후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등 30여 명이 공원 둘러보기 행사에 참가했다.

효순미션 평화공원 완공은 자주평화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것으로 한반도가 자주,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효순미선 평화공원은 자주적인 한반도를 만들어갈 산 교육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오늘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2002년 6월 13일, 효순미선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지 만 18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비록 현재는 경색국면에 있지만 남북정상사의 역사적인 세차례 상봉과 그 결과로 이어진 4.27, 9.19선언이 있었습니다.


다소의 곡절을 겪겠지만 외세에 의해 굴곡을 겪어 온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 정의를 향한 역사의 전진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만 18년이 지난 오늘까지 효순미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가는 길 곳곳에서 우리는 자주권이 없는 나라의 아픈 현실에 직면합니다. 사건의 책임이 있는 미국에 당당히 책임자처벌과 사죄를 요구할수 있는 나라는 여전히 요원한 현실입니다.

18년이 지난 오늘, 그 아픔의 자리에 효순과 미선을 기리는 작은 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잊을 수도 결코 잊어서도 안되는 그 슬픔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해 오늘 우리는 아픈 역사의 현장에 평화공원을 세웁니다.

이 공원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효순미선의 안타까운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당당한 나라, 자주적인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키우는 산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교조는 창립당시부터 참교육의 주요내용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한반도의 화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교육을 가장 앞세우고 지난 31년,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공원에 모인 모든 이들의 정성과 마음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되새기는 일에 전교조 6만 조합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립니다. 

자주 평화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날 효순이와 미선이

변혜숙 논산계룡모임

심장이 쿵닥거리며 떨어 왔습니다.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43-3 그곳에서 난 무엇을 만날까? 첫 기차를 타느라 잠을 설치 창에 기대어 잠든 딸아이 얼굴을 보면서 기억을 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등등의 생각들로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2002년 그해 겨울,

세 살배기 딸아이를 손에 잡고 그해 여름에 태어난 아들을 등에 업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미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만 촛불의 분노가 어지간히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서인지 촛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그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딸이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자신의 의지를 담고 앞장서 길을 나선 것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효순미선이의 아빠도, 제 인생을 살아내고 있을 딸들을 그려보며 집을 나섰을 테지요. 가슴이 먹먹하게 떨려 왔습니다.

14살 효순미선이의 운동화를 형상화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원,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공원”에 들어서자, 하늘 보다 더 파란 가림막이 만들어낸 동그란 빛 방울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18년 전 효순미선이를 잃고 상처 입고 구겨진 운동화 “잘 펴서”어여쁘게 단장하니 효순미선 하늘로부터 꿈 빛 되어 방울방울 내려앉은 듯 따뜻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전쟁의 공포, 한미관계의 불평등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참아서는 안 된다고 외치던 그 때, “다행히 붉은 핏속 적혈구 하나가 살아나 촛불로 타올라 눈 감을 새 없이”효순미선이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56번 지방도”에서 시작되는 “역사의 길”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은 노래하고, 시민은 흙을 나



촛불 벽화 작업에 참여하며..

르고, 시민은 망치를 두드리고, 시민은 반
뿔불이를 그리고, 시민은 시를 쓰고, 시민
은 벽돌을 나르고, 시민은 잔디를 심고,
시민은 물을 나르고, 시민은 전깃불을 켜
고, 시민은 빵을 사고, 시민은 밥을 사고,
시민은 못을 줍고, 시민은 불침번을 서고,
시민은 춤을 추고 시민은 사진을 들고, 시
민은 모래를 깔고, 시민은 땅을 파고, 시
민은 돌을 쌓고, 시민은 비행기를 타고,
시민은 걷고 또 걷고, 시민은 추모비를 품
고, 시민은 주저앉고, 시민은 일어서고,
시민은 꽃을 들고, 시민은 비질을 하고,
시민은 촛불을 그리고, 시민은 글을 쓰고
시민은 운동화를 그리고, 시민은 벽을 세

우고, 시민은 길을 닦고, 시민은 분리수거를 하고, 시민은 도시락을 나누고, 시민은 찬을 껴매
고, 시민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 모든 기억들이 쉬이 사라지지 않기를, 시민은 어른 손 한 뼨 남짓 처마를 두르는 애뜻함을
보태어 효순미션 평화공원을 어여쁘게 완공하였습니다.


“56번 지방도”에서 시작되는 “역사의 길”을 잊지 말아야 하기에 시민은, 그 많은 시민은 이구동
성으로 “효순미션이의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기원하고 “평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다짐을 하
고 서로를 격려하고 수많은 손길이 되어준 서로에게 감사하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은 “이 땅의 점령군과 휴전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전
쟁과 무기와 군대와 살상이 사라지는 그날”을 꿈꾸며 효순미션 평화공원을 걷고 또 걷겠지요.

구부정한 허리와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효순이의 아빠는 눈물을 삼킵니다.

잠시 후면 아빠는 “덕도리로 넘어가는 56번 지방도”를 걷겠지요. 그곳에서 아빠는 틀림없이 만
날 것입니다. “자주 평화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나” 제 삶을 두벽두벽 살아 낼 효순이와 미션
이를 틀림없이 만날 것입니다.

전 그곳에서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걸어야 할 “역사의 길”을 걷고 왔습니다. 

* 효순미션 평화공원 완공과 18주기 추모제 참가 소감글로 당시 발언 내용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완공된 평화공원에 와 보니,,

강윤미 서울평통사

역시나 ‘현장’에 와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머리로 슬프다 안타깝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갔을 때에 진정 가슴으로 아파하게 된다. 효순미선이 미군 장갑차에 으스러진 그 장소를 직접 보는 순간순간은 전해 들었던 그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또한 현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이들의 에너지를 느낄 때의 그 경험은 다시금 그 현장을 찾게 만드는 힘이 되는 듯하다. 평화공원 안쪽 벽화에는 2002년 당시 광장을 밝힌 촛불이 그려져 있는데 촛불 하나하나의 힘을 알게 된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 빛나는 촛불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12년 만에 성금도 공사도 오직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공원, 많은 이들이 찾아와 자주 평화의 배움터로 자리 잡길 바란다.

김성태 인천평통사

너무나 감동적이다. 6년간 평통사 활동하면서 이번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벅찬 감동을 느낀 적이 없었다. 땅 매입 과정에서 매우 힘든 과정을 지켜봐왔던 나로서는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벅찬 감동이 몰려왔다. 특히 박석분 팀장이 경과과정을 발표할 때 잠깐 울먹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울컥했다. 평통사가 자랑스럽다

정동석 광주평통사

행사장 주변에서 나름 맡았던 역할이 있어 전체적으로 행사 참여는 못했지만 평통사 식구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고,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았다.

정말 이 땅 자주 평화통일의 큰 이정표를 세웠다. 앞으로의 활용에 준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듯하다. 지역에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 이름과 단체를 사진으로 보냈더니 평통사에 대해 더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위상이 더 높아졌음을 느꼈다. 누구 말처럼 “평통사는 한 번 물으면 쉽게 안 놔주네.”

정서윤 서울평통사

시민의 손으로 결국 완성한 평화공원, 그리고 그 벽에 빼곡히 그려진 촛불을 보면서 효순 미선이 압사당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임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길에 나 또한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다. 나무 두 그루 면적도 안 될



추모행사와 완공식을 모두 마치고, 문규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평통사 참가자들

만큼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추모비가 여태껏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제야 추모비도 설 자리를 잡고, 평화공원도 만들어졌다. 늦게나마 효순 미선의 넋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 다행이었다.

권규병 김제평통사


공원 안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보았을 때 꽤 작다 싶던 공간이, 들어가서 보니 어찌나 커보이던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온 마음들이 가득한 게 느껴져 그랬던 것 같다. 벽화에 그려진 촛불 하나 하나, 꽃 한 송이 한 송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날따라 쨍쨍한 햇볕과 파란 하늘이 공원과 참 잘 어울렸다. 참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추모의 의미도 큰 공간이었지만 나는 마냥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보다는 날씨의 화창함, 그것과 어우러진 희망과 드디어 완공되었다는 기쁨을 한껏 더 느낄 수 있었다. 추모와 희망의 마음이 떠올랐을 때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은정 제천모임

당시에는 중학생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도 몰랐다. 대학생 때 처음 양주로 농활을 가게 되면서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할수록 큰 충격을 받았다. 내 또래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 미국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해방 이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다. 미군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소성리의 사드나 강정의 해군기지.. 모두 끝나지 않은 비극의 진행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야할 것 같다.

신재훈 서울평통사

김대송 대표, 손기종 국장, 정용진 국장, 세 사람 호흡과 손발이 어찌나 잘 맞던지 갈 때마다 공사가 척척 진행되는 것이 보였다. 실무자들과 회원 작가들, 예술가분들 다들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힘을 모아낸 결과물이 효순미션 평화공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효순미션 평화공원은 18년의 긴 세월이 걸렸지만 평통사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 한다면 해내는 전통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평화공원은 효순미션의 한을 풀고 끝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친애하는 한국 친구들에게

- 효순미선 평화공원의 완공을 환영하며


앤 라이트 예비역 대령,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고대하던 한국 양주에서 “효순-미선 평화공원”의 역사적인 개장을 앞두고, 6월 13일 이 특별한 기념식을 위해 모인 한국인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 평화공원을 건설하는데 작은 공헌자로서, 우리는 이 기념식에 대해 듣게 되어, 그리고 정신적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이 중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한 모든 한국 자원 봉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한국 10대 여학생의 때 아닌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큰 비극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휴전 이후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복무한 이들을 포함하여 미군 출신 군인으로서, 지난 75년 동안 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많은 범죄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신효순, 심미선 가족뿐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효순과 미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002년 6월 13일, 50톤 미군 장갑차가 공공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한 효순 미선이의 잔인한 죽음과 이후 미군재판소에서 세 명의 대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정당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촛불시위를 촉발시켰고, 한국에서 10개월 동안 촛불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중운동은 한국에서 촛불시위의 새로운 시위문화가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야 효순과 미선에게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날이 도래하여 마침내 한국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외국군과 그들의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입니다. 한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 평화공원에서 효순이와 미선이가 영원하길! 지금 당장 한국전쟁을 끝내라!

연대하며, 2020년 6월 10일 

———— 앤 라이트 대령이 이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대신 보내온 메일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남북 정상들이 천명한 ‘새로운 평화시대’는 정녕 이대로 뿌리 뽑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다! ‘새로운 평화시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다시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민족의 명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판문점/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에 대한 준엄한 약속으로 남북 당국이나, 미국의 이해에 따라 그 구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그 끝이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과 전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판문점/평양 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남북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이번 남북대결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남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 데 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이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어 왔다.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하에도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의 수많은 경고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치가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적대적 입장을 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11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바 있다.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작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노래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다. 이 모순을, 이 무책임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들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하나도 없이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2020.6.17, 청와대 분수대 앞

해결 방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너무나 자명하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 판문점/평양 선언의 즉각, 전면 이행에 그 길이 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단절되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폭파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재건하며 대남 전단 살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남 군사적 대결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대응 또한 모순이다.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 방치에 대한 북한의 일련의 대남 극한 대응이 남한의 판문점/평양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재군사화는 남한 당국의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의 길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이로써 북한 스스로가 판문점/평양 선언을 파탄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폭파 방식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기는 이미 남한 국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군사화 조치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평화시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성은 남한 국민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서도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야말로 교각살우의 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는 북한 당국에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오로지 대화와 협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은 민족을 수차례나 공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의 대결과 위기 국면이 자칫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핵전쟁의 참화 속에서 민족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 군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 선언이 소중하며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판문점/평양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내일이란 없다. (2020. 6. 17) 


평통사 청년 활동가로서 맞는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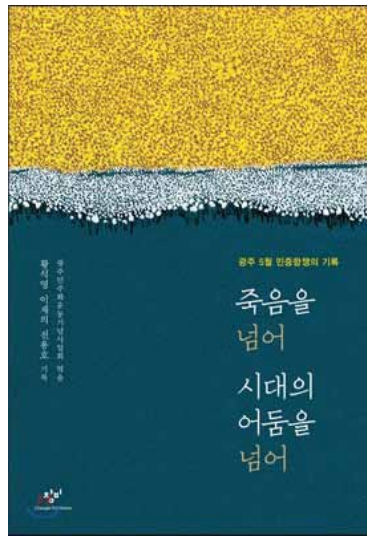
지난 5월, 평통사 청년상근자들과 청년회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5.18 광주항쟁에 대해 공부하며 그 의미를 되짚어보았다. 학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자 청년상근자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쓴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1. 5·18 광주항쟁과 평통사 - 이기훈

5.18광주항쟁은 외세에 의해 부정당해온 자주를 되찾기 위한 ‘민족항쟁’ 이요, 암울했던 군사독재를 끊어내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민주항쟁’이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이 이뤄낸 ‘민중항쟁’이었다. 평통사 활동가로서 40주년을 맞는 5·18 광주항쟁을 어떻게 되새겨야 할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80년 당시에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국(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했다. 당시 위کم 주한미군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1980. 5. 17)되기 3일 전 미국으로 떠나 자리를 비움으로써 전두환 신군부세력을 묵인·방조했고, 전남도청에 남아 끝까지 저항한 시민군을 진압(1980. 5. 27)하기 위해 20사단을 동원하도록 사전 승인했다. 미국에 의한 자주의 훼손이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의 과제가 주어진 것도 외세가 한반도의 자주를 부정하며 분단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평통사는 창립(1994. 6. 4)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주투쟁을 선도해왔고, 자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정세의 변화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 이리저리 갈피를 못 찾고 헤매는 속에서도 평통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운동의 중심에 있는 자주를 끝까지 견지했기 때문이다. 5·18광주항쟁을 되새기며 평통사 투쟁의 의미도 다시 되새겨 본다. 




2.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 - 김은주

5.18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평화가 짓밟히고, 일상이 파괴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정신을 잊지 말자고 한 지 불과 10일 만이었던 5월 28일, 또 다시 기습적으로 소성리에서 자행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그 예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천의 경찰병력이 소성리 작은 마을로 들어왔다. 고작 7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과 연대자를 고립시키고 인권을 침해해가며 사드 장비를 끝내 들여놓았다. 그러나 몇 천의 경찰병력 앞에서도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사드가 반입되는 길목을 막아섰다.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싸웠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8·90의 노구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40년 전 5월, 광주 역시 이기지 못할 싸움이였다. 그날의 광주 시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무엇이 옳은지 알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한순간 삶의 터전이 전쟁터가 된 광주 시민들은 자기 것을 내놓았다. 누구랄 것도 없이 광장으로 나와 헌혈을 하고 먹을 것을 나누었다. 목숨을 건 시민군들을 응원하고 지원했다.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냈다. 그 당시 군부가 폭력으로 짓밟은 광주는 단 한 건의 범죄도 약탈도 없는 대동사회였다. 광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은 민중들이 만든 질서와 평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 희생,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힘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오월의 정신이자, 대동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일 것이다.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

이 땅의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 자주를 실현해 진정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일은 국가도 정부도 아닌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 민중, 학생, 청년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민중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억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대동사회를 바라는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평화운동가로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나의 마음에도 대동세상의 작은 꽃씨가 날아들었다. 5.18 민중항쟁을 이끈 광주 영령들과 광주시민들의 오월정신을, “산자여 따르라”던 그 외침을 기억하고 광주 민중의 준엄한 역사의 길을 따라 가겠다고 다짐해 본다. 

3. 박관현, 윤상원 열사를 기억하며 - 이우성

광주 5.18 민중항쟁은 여러 이름 모를 열사들과 가진 것 없는 시민들, 그 중에서도 민족민주화 성회에 앞장섰던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 열사와 그를 학생회장에 나가도록 설득하고 자신은 끝까지 전남도청에서 군부와 싸운 윤상원 열사의 굳건한 투쟁으로 만든 역사다.

박관현 열사는 삼수를 하다 대학에 가지 못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고시공부를 했다. 그러다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되고, 노동자민중, 사회의 불평등, 노예적 삶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게 된다. 그런 삶의 경험을 담아 5.18 민중항쟁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민족민주화성회에서 연설을 하다 보니 광주에서 박관현 열사를 모르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대중적이었다. 그의 마지막 연설은 이렇다.


“우리가 민족민주화 햇불성화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요... 우리 민족의 함성을 모두여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꺼지지 않는 햇불과 같이 우리 민주의 열정을 온 누리에 밝히려는 뜻에서.... 온 누리에 이 햇불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는 민족민주화성회를 통해 5.18 민중항쟁을 이끌어가는 의미를 민족, 민주적 성격임과 동시에 민중들의 힘으로 이끌어내야 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이 연설이 당시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가족, 친구, 연인들의 피와 죽음을 보며, 또 언젠가 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윤상원 열사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다할 수 있던 은행원 일을 그만두고 광주로 내려와 스티로폼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한다. 5월 18일,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자 윤상원 열사를 포함한 항쟁의 지도부들은 광주에서 피신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무장을 하고 군인들과 맞서 싸우려는 시민군들이 나타났다. 뒤통수를 맞은 듯이 윤상원 열사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는 오늘 도청에서 본인은 죽을지라도 광주시민들을 믿고 내일의 승리를 확신했다. 윤상원 열사가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광주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이켜보고 진정 광주시민들의 이해와 요구, 당시의 시대가 자신에게 주는 과제를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받아 안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평통사 활동가로서 5.18 역사 속 인물들이 대중들을 통해 배우고 대중들과 함께 나아가며 죽을 때까지 대중의 이해를 위해 살다 헌신함으로써 진정한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고, 앞으로의 사회발전 또한 이와 같이 오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내 사적인 이익, 자존심, 오만함을 버리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할 때 광주에서 꿈꿨던 노동자 민중들이 일궈낸 민족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운 박종섭 대표님께

정동석 광주평통사



1994년 6월 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세상에 이름을 알린 날이다. 2017년 6월 4일, 평통사의 23번째 생일날 아침, 광주전남 평통사 박종섭 공동대표께서 우리 곁을 떠났다.


“농민 운동가들이야말로 진정한 양심가”들이라며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던 박종섭 대표는 2008~2010년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부의장을 하면서 평통사와 인연을 맺었고, 특히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함께하며 농민운동가에서 자주 평화통일운동가의 삶을 걷게 되었다.

“한번 결심하면 고집 세게 밀고 나가는 사람”, “순수하다”, “부지런한 사람”, “품성이 좋다”, “고생 많이 하고 사신 분”, “항상 웃는 사람” 등 박종섭 대표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다.

많은 소를 키우며 농사도 짓던 농민이기에 광주로 나와 1인 시위와 회의라도 한번 참석하려면, 멀리 서울로 회의라도 가거나 임원워크숍 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제주를 한번 갔다 오기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남들보다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평통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겹의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갔다. 그 노력 끝에 결심이 서면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켜 나가던 사람이었다.

노(老) 선배들께도 깎듯이 예의와 존경을 다했고, 멀리 광양항에 미군하역 훈련 대응을 가는 날이면, 멀리 광양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에게 투쟁기금이라도 쥐어주고 오던 따뜻한 분이었다. 그런 모습에 배종열 전 평통사 상임대표께서 광주전남 평통사 공동대표로 추천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최근 남북관계가 복잡하고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진보운동 진영의 중심과 토대가 취약한 시기. 조금은 고집스럽지만 원칙적이고 독심 있던 그 분이 더욱 생각이 난다.

매년 6월 4일 평통사의 생일이면 생각나는 박종섭 대표. 2020년부터 광주 평통사 모범회원에게 ‘박종섭 평화통일상’을 수여하여 잘 모르는 후배 회원들과 함께 그 분을 잊지 않고자 한다. 

[고인의 삶] 1955.3.9 전남 화순 북면 출생 | 1985 가톨릭농민회 활동 | 1987 화순군 북면 농민회 초대회장 | 2004~2007 화순군농민회 회장, 화순민중연대 의장 | 2007~2009 화순진보연대 상임대표 | 2008~2010 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 2015~2016 화순군농민회 회장 | 2013~2017년 광주전남평통사 공동대표 | 2017.6.4 불의의 사고로 영면

군산미군기지 현황과 문제점 : 군산미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박윤옥 군산평통사 대표

군산미군기지 앞에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면 집회가 열린다. 이번 달 17일에도 군산 시민 단체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김제 등 전북권에서 활동하는 평화 지킴이가 다수 참여한 가운데 625차 집회가 열렸다. 장장 2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투쟁을 해 왔지만 군산 미군기지는 한미 동맹을 무기삼아 대북 선제공격 무기들이 배치되고,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목으로 야금야금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 미군기지는 어떤 곳이며, 그곳에 배치된 군사시설과 무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군산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군산 미 공군기지(일명 WOLF PACK)는 군산시 청에서 직선거리로 11km 떨어진 옥서면 선연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313만평이던 미군기지 규모는 2005년 아파치헬기 부대 부지(약 15만평)와 탄약고 안전거리(약 49만평)확보를 명목으로 총 64만평을 강제로 수용, 2019년 기준 377만평에 이른다. 이후 대체 공여지로 12만 7천 평이 추가되어 2020년 현재 총 389만평에 달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군사시설

군산기지 안에 있는 2개의 남-북 활주로는 약 2,75km이며 유도등을 포함할 경우 활주로 길이는 약 4,5km이고 주 활주로는 하제마을에서 산동마을까지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다. 격납고는 5분대기 격납고 10여개를 비롯하여 지붕 없는 격납고 30개가 있다. 또한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격납고가 2020년 총 20개가 완공되었으며 20개 모두 원-스톱 격납고로 주유, 무기장착, 정비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70여 개의 1급 탄약고와 매그넬 탄약고가 40여 개가 있고(1987년부터 한국공군이 미 태평양공군의 탄약을 저장관리하기 시작) 미군폭발물처리장과 강풍과 일기변화에 대한 레이더 안테나 등 시스템을 보호하는 레이더 돔이 1개, 지하유류탱크가 11개(남,북쪽에 각각 5개, 북쪽에 외부유류탱크 1개)있으며, 그밖에 물탱크 2개가 있다.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 무기와 운용

군산 미군기지는 해수면 보다 낮아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최적의 기지다. 대북, 대중국을 겨냥한 신속기동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 제공권 장악과 북한 기계화 부대 공격 등 대지상 및 공대공 임무를 맡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에는 상주하는 2개 전투 비행대대, 6개월 마다 순환배치 되는 1개 전투비행대대 등 약 30~40여대의 F-16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다. 특히 유사시 평양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재즈(JASSM)’도 배치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군산·오산 기지의 주한미군 소속 F-16을 F-35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 배치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군산기지에서는 평소 하루에 약 50여회의 전투기 출격 연습이 있고 국내, 국제 상황에 따라 주일미군 병력과 함께 대규모의 비상훈련 연습을 하는데 이때는 24시간 동안 100~150회 이상의 출격을 한다.

또한 군산미군기지에는 최신형 무인 정찰 및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6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20년 9월쯤 그레이 이글보다 정찰능력과 타격능력이 강화된 그레이 이글-ER 무인 공격기 6대가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육군 제35방공포병 여단 예하 부대가 운용하는 패트리엇 포대도 배치되어 있다.

군산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주민 강제 이주

국방부는 2005년부터 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주둔과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분으로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으며 이에 하제지역 6개의 마을에 터를 잡고 살던 644세대는 강제이주를 당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위험한 탄약고를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거주지역 인근에 추가로 설치하고 탄약고 때문에 주민이 위험하므로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현재 하제 마을에는 2가구가 남아 배상 문제 등에 반발하여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 더욱 심해지는 미군 전투기 소음

군산미군기지는 전투기 이착륙이 많게는 하루 150여 차례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전투기 소음이 약 110dB까지 치솟는다. 주거지의 한계소음이 65dB이고 90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장기능 저하와 평형력 교란, 청력장애와 두통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 피해는 심각하다.

● 오폐수 배출과 기름 유출

70년 이상 사용된 군산 미군기지 내부는 한국정부조차 관여할 수 없어 미군 관계시설을 파악할 수 없고 또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기지주변 농민들이 경작하는 논밭이 오염되고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지역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다.




2003년 미군기지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장기간의 기름유출 등 송촌마을 기름 유출사건이 2건 발생하였고 2005년 미군기지 내 유류저장탱크 유수 분리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다시 송촌마을에 기름이 유출되어 농수로에서 물을 댄 논 3,000여 평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미군기지 주변 논이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원인은 수십 년 간 사용되어 부식된 미군기지의 기름 탱크와 송유관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라 추정되지만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미군은 이를 조사는커녕 기름 유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송유관 불법 매설 및 사유지 무단 점유

군산미군기지가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총 연장 8km에 면적이 67,582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982년 제3부두에서 미군기지로 이어지는 약 9km를 송유관을 새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송유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인데 37년이나 된 노화된 송유관을 방치하고 있어 언제라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시민감시단 활동과 현안실천의 발굴

2018년 2월에 ‘군산 미군기지 시민감시단’이 결성되었고 군산평통사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시민감시단은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고 있는 무기체계, 미군기지내 격납고 공사와 기지 확장, 마을 이전 문제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이후 군산기지 인근 주민을 비롯한 군산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 광주평통사

광주민중항쟁 40주년 기획전시 '오월에서 통일로 평화로'



5월 17일~29일까지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기획전시
시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사와 핵무기금지조약' 내용
으로 판넬 전시와 서명운동 및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
단, 협정 폐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 70년에 즈음한
반전, 평화, 자주통일의 내용으로 집중 릴레이 홍보전
을 이번 기획전시 경험을 살려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
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전, 반핵, 양키고춤!" 이재호 열사 34주기 추모제 참가



1986년 4월 28일 서울대 재학생인 이재호 열사는
“반전반핵 양키고춤”,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
사반대”를 외치며 신림동 사거리에서 김세진 열사와
함께 분신, 항거하였습니다. 올해로 34주기를 맞는 이
재호 열사 추모제가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열렸습니
다. 안타깝게도 이재호 열사의 어머니이신 전계순 어
머니께서 5월 22일 별세하셨습니다.

| 정동석 |

정규영 흥기원 두 대표 및 회원들과 장례식장과 추모제
에 참여했습니다. 열사의 어머니의 발인 날짜와 이재호
열사 추모제가 같은 날짜라 더욱 가슴이 아파 왔습니
다. 이제 아들 이재호 열사를 만나 34년 못다한 이야기
를 한 없이 풀고 이재호 열사의 마지막 편지 글처럼 “
기쁨의 해후”하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반전, 반핵, 양
키고춤!”열사의 송고한 뜻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날이었습니다.

♥ 나주평통사

2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달 5월 25일, 나주평통사는 이레교회에서 제2
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회원 35
명 가운데 위임 8명, 11명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임원 선출, 정세 보
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으로 진행하였습니
다. 모든 임원(대표, 운영위원, 감사)은 연임키로 하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사무국장에 이현영 회원이, 신임
운영위원으로 강현욱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지역사업으로 9월과 10월에 회원한마당과 대중강연회
를 진행하고 7.27행사,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
운동에 집중 참여를 독려키로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이정훈 대표는 “코로나19에도 시간을 내주
고 평화와 통일의 길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 해주
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올 한해 어려
운 정세 속에서도 각자가 통일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는 결의 발언으로 2차
정기총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 정동석 |

♥ 군산평통사

제13차 정기총회



피폭 75년,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한 길에 새 평화세력 모아내자! 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13차 정기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진행했습니다. 6월 10일(수)에는 임원들이 모여 온라인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입 운영위원 선출, 2020년 사업계획과 예결산 승인을 온라인 총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의 승인에 따라 통과시키고 새로운 운영위원들과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군산미군기지 월례집회



6월 17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 앞 월례집회는 평화순례중인 제천 간디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울동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무력무력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한반도에 전쟁없는 그날을 앞당길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철 운영위원들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주어서 집회 마친 후 함께한 분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 최소영 |

♥ 목포평통사

제6차 정기총회



6월 12일(금) 오후 6시30분 목포평통사 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원 전체가 모이지 못하고 대표, 감사,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기중 감사의 2019년 활동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2019년 사업평가와 결산안 승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 활동 평가에서 회비납부율이 낮기에 회원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는 점, 대중교육이 미흡하다는 점, 회원 확대가 안 된다는 점, 방위비분담금 폐기 1인 시위, SNS 홍보를 열심히 하려 했으나 흡족할 정도로 적극성을 띄지는 못했던 점, 6.1 미대사관 돌레행진이나 7.27 평화홀씨마당과 목포 지역 6.15 통일축전 행사 등 주요 실천에 회원 참여율이 낮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에 부족한 점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회원관리를 잘 하고 공부와 실천에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5월 공부모임과 실천

5월 28일(목) 저녁 7시에 공부모임을 했습니다. 공부모임 전에 목포역 광장에서 방위비분담금 폐기와 군공항이전 반대 피켓팅을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공부모임에서는 효순미선 18주기 추모행사와 평화공원 조성을 앞두고 2002년 효순미선 관련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고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 정동석 |

♥ 대구평통사

기습적인 사드 추가배치 규탄 기자회견



6월 1일, 폭력적으로 사드장비를 추가 반입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폭력정권은 지난 5월 29일, 4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소성리에 사드를 추가 반입시켰습니다. 이에 함께한 회원들은 대구·경북 노동자, 시민들과 부당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자행된 국가폭력을 규탄하며 사드를 완전히 뽑아내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진발교 평화행동과 성주경찰서 항의집회



사드장비의 불법 추가배치를 규탄하고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차량을 차단하는 평화행동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진발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에서 단체별로 참여하고 있고, 대구평통사는 매주 화요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장비 추가 반입 시 자행된 반인륜적 폭력진압과 여성인권 무시에 대한 성주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매일 저녁 소성리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대구회원들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1차 정기총회



코로나19로 미뤄진 총회가 6월 11일 대구평통사 교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총회에서 김찬수대표가 상임대표로 정수경 운영위원이 공동대표로, 소성리 현장에 상주 중인 중앙의 김영재 기획팀장과 김천 김중희 회원이 신임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활동의 부진을 딛고 실천의 힘을 키우는 해가 되도록 2020년 하반기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공부모임에 사활을 걸다



중단되었던 공부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대안으로 시작한 온라인 모임이 오프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었던 회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앞으로는 온·오프를 병행하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실천 활동의 원동력은 학습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령평통사

2020년 보령시민평화아카데미



6월 17일에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후원하고 보령평통사가 주최하는 '2020년 보령시민평화아카데미' 1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손 세정제와 발열 체크기와 방역력을 준비하였고 마스크를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준비된 마스크를 지급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참여 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6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을 강사로 모시고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모든 참여자들이 집중하여 청강하였습니다. 강의내용에 공분하기도 하고 중간에 질문과 소견을 밝히는 등 열띤 시간이었습니다. 꾸준히 평화아카데미에 참석했던 임성희님이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신입회원 교육



6월 19일 신입회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석 대표 소개로 참석한 정정희님과 홍순오 신입회원의 부인인 김지은님이 즉석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입회원 교육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평통사의 역사와 전문성 투쟁성을 접하면서 항상 넘치는 감동을 받습니다.

| 권진복 |

♥ 부천평통사

효순미션 평화공원 둘러보기



위선적인 미군추모비에서 효순미션 추모제를 할 수 없어 사고현장 아스팔트에서 추모제를 지낸지 18년 만에 우리 국민들의 뜻과 정성으로 만든 추모비와 평화공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한 하루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어 본 추모제 뒤로 이어진 평화공원 둘러보기에 회원들과 참석하였습니다. 6월에는 평화공원 공사에 참여했던 사무국장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의 의미에 대하여, 18년을 기억하며 함께 그 의미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무실로 오세요!!

6월 평화행동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만 총회를 시작으로 모든 일들이 미뤄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래도 작은 실천이라도 하기 위해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정덕인 회원은 평화를 위한 실천은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남편(회원)과 함께 야근이 없는 날 주 1회 1인시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마음을 모으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주정숙 |

♥ 부산평통사

사드 철거, 소성리 연대방문



손기중 사무국장과 박석분, 신차범 운영위원, 김은주 회원이 6/20(토) 성주경찰서 앞에서 열린 소성리 토요집회에 참가했습니다.

6월 월례평화행동



6월 2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한 판문점/평양선언 이행 촉구 1인 시위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에 함께하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손기중 사무국장은 공원 설계 및 시공을, 신차범 운영위원은 공사현장 지원을, 남태호, 김영미 회원은 부산에서 조명을 긴급 수송하였습니다. 회원들의 힘으로 완성된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식 및 18주기 추모제가 열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평화홀씨 합창단 공연과 평화발자국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효순미선 평화공원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효선·심미순 평화공원을 지으며

이순일 회원(경남참교육동지회 회장)

미국,
상전 나라 어떤 군인은
한국사람들은 들춰 근성이 있다고
이웃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
크게 떠들다가도 삼 일만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한다

오냐, 명심할게
뼈에 새길게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두 소녀를 기억할게
죽어도 잊지 않을게

무죄라고 뺄소니친 그들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감당 못하는 일들

이름없는 우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평화공원이라도 만들어
살았으면
제 또래 아이들 어미되었을
열네 살 여중생들을 기릴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잊지 않을게
돌에도 새기고
내 몸의 모든 세포에도 새길게

들쥐의 통곡으로
잊지 않을게

| 유수진 |

♥ 서울평통사

효순미선 평화공원 공사에 함께하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공사에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종도, 이구영 회원은 공원 전체 벽화를 그려주었고, 청년회원들도 공사와 벽화그리기에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변연희 회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사장을 찾아 온갖 일을 해주었고, 전교조 문병모 선생님은 서울지부 선생님들과 함께 공사장을 찾았고, 이규 회원은 태양광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신동욱 회원은 공원 조경을 맡아 주었습니다. 신재훈, 윤영일, 강수혜, 장남희 회원도 공사장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원폭2세 고 김형률 15주기 추모제



5월 23일(토),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마당에서 열린 원폭2세 고 김형률 15주기 추모제에 황윤미 대표와 소성리 상황실에 파견나가 있는 김영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청년모임과 성공회대, 구술채록 소모임에서 진행한 김형률 추모 온라인 서명 소식을 전하고, 앞으로 원폭 피해자와 함께하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으로 추모사를 대신했습니다.

| 황윤미 |

♥ 순천평통사

효순미선 평화공원 기금 모금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순천 시민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각 단체와 순천 평통사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화공원 조성의 의의와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금 모금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철도노조, 농협노조, 정의당, 순천 6.15합창단을 비롯한 단체와 개인들이 적극 호응해 주었습니다.

운영위원들 단합과 결의다져



5월 운영위원회를 오목목 상임 대표택에서 29일 개최 하였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결과와 지역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 촉구 서명 운동 전개 방안과 공부 모임, 역사 기행 소모임 주체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후에는 간단한 만찬 자리도 마련하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

5.18민중항쟁 40주년 순천 행사를 지역 30여개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6월말 오월 강연회와, 7월말 오월 그림 전 "붉은 땅 나무에 꽃피우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수 |

♥ 인천평통사

지상의 평화 월레미사 '김일회 신부님과 함께하는 평화이야기'



가톨릭 회원으로 구성된 지상의 평화모임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월레 미사'를 드리고, 상임대표인 김일회 신부님의 평화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지난 5월27일(수) 첫 월레미사에서 평통사의 활동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6월 평화미사는 6/24(수) 저녁7시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열렸는데, '핵과 평화'를 주제로 핵무기의 반인륜성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과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7월 평화미사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강화 갑곶성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실천팀' 회원들의 5·6월 실천일기



김성태 대표를 비롯한 실천팀들은 '방위비분담 협정폐기!'를 위해 5/19~6/18까지 주1회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5월 29일 실천팀 회원들은 밤잠을 설치며 페북라이브 방송으로 소성리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사드 장비가 반입되는 모습을 보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다음날(5/30) 청와대에서 열린 사드장비 반입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효순미선 평화공원 공사장 청소에 참여했습니다. 동해번쩍 서해 번쩍 애쓰는 실천팀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원여러분~ 함께 실천해요 ^^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유튜브 평통사TV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기에 함께해 주세요!

6월 평화사랑방



6월 2일 평화사랑방에서는 지난 5월 29일 소성리에서 벌어진 사드 장비 반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반입된 사드 장비는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D에 따른 사드 성능개량이었고, 이것은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MD)를 위한 것으로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유정섭 사무국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역시 평통사에 와야 제대로된 얘기를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며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사드 철거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 유정섭 |

♥논산계룡(준)

회원실천- "사드빼야 평화온다~ 얼썩~"



6월 21일 오후 논산시민공원에서 논산계룡모임의 첫 회원실천을 논산교육박물관 '두드림'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공원 둘레 길을 행진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도 받았습니다. 작년 청소년평화캠프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찾아와 인사도 하고 서명도 하였습니다. 첫 실천에 나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다소 어색했지만 이렇게 논산 시민들에게 평통사를 알리게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회원실천을 통해 회원들과의 연대감도 부쩍 자랐습니다.

6월 월례모임



6월 23일 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석분 팀장의 정세브리핑 시간에 "남북당국에게 드리는 글"을 함께 읽고, 호순미선 평화공원의 의미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의 문제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회원실천에 이어 7월 21일에는 전체 회원들이 모여 퇴근길 피켓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출근길 1인 시위를 회원들이 논산 곳곳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16일에는 호순미선 평화공원 기행도 함께 합니다. 실천을 함께하면서 회원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달에 이윤미님, 임의수님, 연구현님이 회원 가입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혜숙 |

♥성남용인(준)

평화공원 자원활동과 1인시위



5/11~29 성남야탑광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반대 1인시위를 진행했고, 용인시장에서 김춘식, 황주연 두 회원이 매 첫째, 셋째 금요일 피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호순미선 평화공원 공사지원을 서덕석, 최병철 회원이 3회(누적 8일)에 걸쳐 평일날 다녀왔으며 공사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서덕석 |

♥대전충청모임

회원 모임 재개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던 지역모임을 재개했어요. 충주음성제천(6/2), 천안아산(6/3), 대전(6/9), 홍성(6/12)에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대체로 생활나눔에 이어 사드 장비 반입 상황, 핵금지조약 2차 서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통사 활동방침 등을 공유하고, 호순미선 사건과 평화공원 조성의 의미에 대해 피티를 통해 함께 알아보고 각자 회고와 소감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했어요. 대전, 아산, 홍성 회원들이 90여명의 핵금지조약 서명을 받아오셨고 홍성에서는 호순미선 평화공원 기금을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 유영재 |

윤동현 윤성림(2개월) 윤수애 윤영수 윤영일 윤영전 윤은섭 윤정원 윤호상
이경목 이경아(2개월) 이경옥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종 이기보 이기영
이기자 이동주 이두우 이봉국 이상기(이경은) 이상미 이상업 이상재 이선옥
이선재 이상환 이수정 이형수 이수철 이훈학 이승무 이아름 이애용 이영욱
이영주 이 윤 이재갑 이재필 이정성(2개월) 이정숙 이정숙 이종수 이혜진
박승철 임종원 임보라 임선희 임수아 임소래 임인식 임정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경도 장기준 장남희 전기화 전영란(2개월) 전은규 정광진 정경숙
정상현 정성원 정순연 정수애 정수원 정연선 정영훈 정영진 정준원 정준철
조계성 조순길 조영희(2개월) 조은화 조창현 조화숙 주혜원 진유식 지정운
채근식 채운석 최대욱 최문숙 최정원 최상술 최석희 최성민 최승문 최승훈
최아람 최영환 최 원 최종필 최창철 최현민 허남덕 한상기 한성우 한석희
한연옥 한종현 한 현실 한호석 허영석 현동식 행복초 흥정회 흥창의(김명화)
홍희덕 황금식 황순하 황원 황윤미 황철우

성남용인평동사(준)(3,4,5월)

[3월] 김민한 김영소 김중국 김중수 김준기 김준표 김춘식 김표무 노병돈
박광범 박종만 서덕식 성백만 신중수 원형식 이순선 이용원 장미라 정선희
정지혜 조주현 지경필 최병철 최재철 하성주 허남해 황주연

[4월] 김민한 김영소 김중국 김중수 김준기 김준표 김춘식 김표무 노병돈
박광범 박종만 서덕식 성백만 신중수 원형식 이순선 이용원 장미라 정선희
정지혜 조주현 지경필 최병철 최재철 하성주 허남해 황주연

[5월] 김민한 김영소 김중국 김중수 김준기 김준표 김춘식 김표무 노병돈
박광범 박종만 서덕식 성백만 신중수 원형식 이순선 이용원 장미라 정선희
정지혜 조주현 지경필 최병철 최재철 하성주 허남해 황주연

순천평동사

고성식 공훈표 김경수 김귀진 김대성 김동국 김동수 김병태 김 석 김영곤
김용재 김유태 김유옥 김이준 김민철 김경호 김중진 김종안 김희남
김하성 김현주 김형식 김효소 류보은 문영태 문영훈 문형필 박광남
박귀주 박미옥 박민근 박병선 박성국 박선택 박성훈 박영주 박옥희 박정훈
박종삼¹ 박종삼² 박종열 박종태 박종태 박진형 박필수 배진택 배순상
송담수 송이경 송형일(박대기) 신근홍 신원식 신한류 심상우 안병일 안순규
임상명 유옥모 오정훈 오태현 오하근 우병미 우지현 유영우 유진이 유성근
윤종원(원국소남) 이거라 이귀영 이규학 이규희 이만재 이성대 이애란 이윤자
이종술 이준식 이형민 임미정 장복식 전성필 정길준 정상호 정양호 정영동
정현옥 조대훈 조영식 조중철 조희열 지영일 최미나 최병래 최상진 최성진
최화진 한혜영 허규희 허남필

안동평동사

강석주 고경희 권영희 김대성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수동 김예숙 김옥희
김재권 김경석 김경희 김중열 김지선 김제현 김판갑 김현택 김혁배 류춘우
류한철 민현주 박무식 박용재 박재근 박종규 배용환 송현복 신성일 여상화
오덕훈 윤미지 이병환 이상로 이흥우 이우원 이 창 이진우 이혜선 임극순
정세길 전경삼 조석옥 조선아 조영문 한철형 황지영

익산평동사

고은순 권은경 김대술 김양용 김영재 김영호 김유순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천 노영래 류일렬 문영만 민 찬 박두식 박영선 박영희 박영호
박용호 박은경 박지현 박창진 박영호 배병국 송동환 신구백
심경희 안영목 안현석 오기주 유재동 유희택 이근수 이병식 이봉이(조원일)
이상문 이석근 이흥선 이은경 이창우 이창철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화춘
임택균 장중수 전규철 전미영 전준철 정수진 정은소 정은용 조가비 채미진
채운석 최미애 최미화 최민욱 최영아 최인경 최재철 최재철 최형남 홍지훈
황영하 황의성

인천평동사

강명신 강병수 강영구 강한일 고보선 고상혁 고영남 고춘하 곽준경 구동훈
권오성 권경석 권혁호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경선 김규식 김기수 김도철
김동건 김경식 김경환 김미경 김민서 김민서 김민정 김병미 김병욱
김보희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김신미 김성금 김성만 김성경 김성태 김소망
김소희 김 숙 김숙희 김상태 김시환 김영소 김용식 김우경 김윤식 김운호
김은숙 김익규 김인경 김일희 김재용 김정원 김경자 김준경 김중갑 김중호
김중호 김준수 김준태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김지훈 김현석 김현숙
김현주 김형진 김형진 김희국 김희숙 김희숙 남두현 남익현 류미애
문경진 문병호 문선희 문영준 문하나 박광선 박근철 박남수 박달수 박동범
박영목 박미정 박병선 박세원 박순길 박숙수 박영민 박옥희 박원재
박유순 박근주 박인호 박정숙 박정운 박종익 박 진 박창현 박창훈 박현주
박혜진 손재지 박승우 박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운 소병욱
손신재 손애자 손정민 손현철 심옥민 심이성 심자성 안영원 안태권 양소숙
신원수 신원래 신현범 신희철 심옥민 심이성 심자성 안영원 안태권 양소숙
양승조 양영석 양미경 양수정 오충훈 오창근 오태호 오혁환 오혜영 우민선
원 웅 원종진 유근석 유성국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진석 유한경 유한철
유현식 유영우 유영선 윤화식 이강희 이경원 이기는 이덕래 이도현 이만재
이무용 이미경 이미정 이병훈 이성로 이성근 이은주 이수진 이은영 이은직
이승현 이승희 이안기 이옥희 이윤수 이윤우 이우성 이은소 이은영 이은직
이은희 이재술 이재우 이재희 이영희 이창희 이태희 이종민 이창근 이창우
이현직 이춘식 이하선 이하선 이혜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수 이형수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범 임강민 임경희 임동록 임민재 임병구 임병구 임재훈
임지우 임희로 정경선 정광수 정귀숙 정동록 정성호 정영태 정영선 정현구
정명락 정영숙 정미자 정서진 정승호 정시호 정영숙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경희 조경숙 조남소 조병규 조병규 조성철 조승수 조은우 조은희 조재호
주민식 주수남 주웅택 지성용 지현규 지현민 이재환 최리주 최병준 최복래
최서일 최순규 최 웅 최정수 최정용 최종락 최준배 최지숙 최현숙 최현호

필갑빈 하경자 한상균 한상욱 한상원 한신복 한연숙 한영소 한재수 한정수
한현진 한종준 허필자 홍 종 홍희각 황병태 황선하 황인철

전주평동사

강기현 강대희 고내희 고이석 고차원 곽동순 국산 국운호 권동용 김두성
김민준 김성환 김여진 김영호 김은자 김재범 김경임 김주진 김진성 김충만
김태수 김효숙 김희찬 김희찬 나영숙 노재화 문이찬 민혜경 박기순 박성열
박수배 방용승 백기룡 백혜영 봉형근 서경희 서미자 서 승 서순수
송기준 송미영 송호경 신귀희 심병호 심 윉 양경자 양동훈 양희진 엄경희
원명재 유영진 육숙경 이기봉 이기섭 이기환 이동백 이종주 이상민 이소열
이승희 이연숙 이영환 이재호 이종희 이지은 이형구 임용진 임익일 장충철
전상호 전소자 전형석 정기동 정기철 정영훈 정은희 조경희 조미숙 조정자 조정현
천호성 최규희 최명숙 최용기 최인규 최재훈 최정옥 최한수 허만수 황대성
황재현

해남평동사

강대희 강태양 김경옥 김미희 김민하 김재식 김상업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근희 김은숙 김정삼 나성근 노 란 문재식 문형규 민경진 박병을 박석종
박승규 박영자 박은정 박종삼 박태정 배종진 백종수 봉문수 서용석
안소희 안종기 안국재 안동욱 양하소 양재현 오성재 이영택 이은옥 윤영아
윤순식 윤상학 윤영식 윤예종 윤준서 윤기환 이형구 이상기 이만열 이영명
이정희 이종관 이훈재 임영호 임현삼 장미호 장우광 정거섭 정경철 정진아
주단우 최영수 최은수 한강희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대전충청 지역 회원

가명환 강기현 강홍순 강혁운 고광성 구본준 권현영 김용수 김경숙 김규원
김규원 김규태 김기현 김도석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복실 김성미 김상중
김선덕 김선미 김성희 김영소 김오경 김재길 김경희 김진영 김하나 김하나
김홍일 김홍수 김홍수(아산) 나백주 남누리 노정래 류기형 문소희 문양로
민하기 박노찬 박산연 박성환 박영정 박원준 박필규 배형태 백영기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운배 석수진 성광진 성원희 송광성 송진기 송준진 송광은
신관호 신성원 신주희 신현용 신현정 심계영 심규상 심상우 심우근 심전호
심주호 안창호 양은영 오수진 오완근 오유환 유관형 유단비 유성호 유승희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유희상 유병민 윤상열
윤여진 윤필희 윤효권 이건용 이광현 이기훈 이도구 이득우 이연희 이병구
이세종 이수연 이숙주 이애지 이요한 이우근 이은미 이은영 이은성 이재학
이종영 이주호 이진민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이춘자 임동수 임병연
장도정 장영진 장인백 장창성 전양배 전준미 전혜련 정명진 정성현 정승길
정은선 정창석 정형영 정현일 정희대 조동준 조통삼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보환 조성미 조영주 조재천 조주형 차경선 차인기 채승병 최만정 최영규
최영민 주교하 풍천교회 한기형 한성일 함필주 허연 홍지은 황영식 황의대

무안 지역 회원

강성욱 김경태 김기주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철필 김효산
문영란 문유신 박삼식 박치우 송봉섭 윤동주 이도선 이태석 임재철 정상철
정영란 정중석 정찬록 채미라 최중률 홍석주 홍용식

전남 지역 회원

강덕구 강복현 기숙희 김광식 김대현 김미숙 김선태 김슬기 김행태 김현지
김환식 김희태 노병남 노형태 류춘신 박경옥 박경희 박동화 박동우 박진숙
박태현 서민호 서정대 송호철 오대형 유원삼 유현숙 유규현 이광수 이도현
이승현 정은정 조동근 채일소 최 성 최순수 최은애 한창덕

제주 지역 회원

강호진 고권일 김광종 김성규 김중환 박한백 방은미 양운호 오명애 오명애
오상진 오우연 정영주

평택경기 지역 회원

강경남 권승훈 권차량 김교원 김상용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윤환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박성철 박영정 서명선 신종원 안창호 염명환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수용 이양진 이은우 이진희 이혜준 정인규 조영길 차지아론
외라판 추병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황영선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일희 김지영 노재열 박진석 신정길 이정학 이진우
임승계 임승철 정규영 조현정 최소영
[회원회비] 강수혜 강윤미 고희림 권기석 권진복 권현영 김관일 김대성 김대승
김미령 김미경 김성태 김숙희 김시환 김시완 김시우 김영석 김영재 김영제
김영희 김유옥 김은주 김중희 김현미 김현숙 김효남 김효남 남규갑 류송하
문규현 민경숙 박경수 박병을 박병을 박복희 박성준 박상희 박석민 박석분
박성진 박영희 박운옥 박하영 박혜철 변연희 서경혜 서종환 손복순 손윤희
손종수 신재현 신재훈 신준규 심진아 심자성 오미정 오종호 오해란 유영재
유정섭 유한경 윤영일 이근규 이경옥 이기자 이기훈 이명옥 이미경 이미정
이석문 이선업 이성로 이양진 이원재 이우성 이은영 이재호 이정숙 이종환
이주는 이형수 이혜연 임민희 임주희 장남희 전예경 정근수 정동석 정수경
정승철 정영록 정용진 정일태 정영태 정원희 조미향 조승현 조은형 조우정
최병삼 최소영 최윤정 하태준 한승동 한혜영 함수연 허영석 한성기 황윤미
[특별회비] 최소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동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 회비 명단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알려주세요

2020년 5월 결산보고서

수 입		지 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① 정기회비	30,704,000	① 인건비	13,165,000
② 정기후원금	1,100,000	② 운영비	6,267,790
③ 부정기후원금		보험료	
④ 사업수입	1,500,000	복리후생비	1,737,970
⑤ 기타수입	458,800	비품비	97,810
⑥ 전월 이월액	1,210,735	소모품비	172,000
⑦ 차입금		수도광열비	397,560
<p>*수입 세부내역</p> <p>① 정기회비 : CMS(30,334,000원), 계좌(370,000원)</p> <p>② 정기후원금 : 향린교회, 들꽃향린, 전주남문교회, 김광열</p> <p>④ 사업수입 : 대관(서울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p> <p>⑤ 기타수입 : 송금오류 환불 등</p> <p>*지출 세부내역</p> <p>1)발송비 : 회지 발송비 등</p> <p>2)사업출장비 : 전주간담회 등</p> <p>3)실천사업비 : 기자회견, 1인시위, 현장지원(소성리)</p> <p>4)연대사업비 : 김형률추모제, 이재호열사추모제, 사드현장지원 등</p> <p>5)회원사업비 : 경조사, 전남회원사업 등</p>		임대료	2,000,000
		정보통신비	238,380
		지급수수료	1,210,070
		차량유지비	374,000
		③ 사업비	4,144,589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도서자료구입비	102,800
		발송비1)	1,219,300
		사업출장비2)	451,300
		실천사업비3)	480,300
		연대사업비4)	697,350
		통일사업비	
		행사진행비	
		청년사업비	148,100
		홍보비	75,713
		회의비	169,426
		회원사업비5)	728,300
		④ 지원경비	10,475,000
		지역교부금	9,365,000
		지역모임지원금	810,000
		자원활동가 지원금	300,000
		⑤ 부채상환	
		⑥ 잡손실/예비비	
		⑦ 잔액(월말통장잔액)	921,156
합 계	34,973,535	합 계	34,973,535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7933-1581 김경수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중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안동평통사

연 락 처 : 010-9867-1599 배용한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20년 6월 24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판문점·평양선언, 군사합의서 이행! 싱가포르성명 이행!



휴전 67년, 7.27 평화홀씨마당



2020. **7.25 (토)**
서울, 오후 1:30분 (예정)

